노인들 "우리도 일하고 싶다"

광주 '노인 일자리 박람회' … 80명 모집에 2,300여명 몰려

"우린 아직도 건재하다. 일하고 싶다."

10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전시동 제3전시장에는 좁은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려는 노인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출입문 앞 이력서 작성대에 나란히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이력서를 작성하는 노신사들의 눈빛엔 진지함이 묻어 났다. 바로 옆 채용 게시판 앞에는 단정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 대여섯 명이 업체별 모집 요강을 한참 쳐다본 뒤, 이내 업체별 상담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5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이번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는 지역 내 빅마트 등 80개 업체가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집과 가깝고, 보수와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이 자신의 기대와 맞는 곳을 찾아 이리 저리 옮겨다니며 분위기를 살폈고, 업체 인사담당자들도 '옥석'을 가리느라 구직자들에게 이것 저것을 묻고 있었다.

중절모를 눌러쓴 송진재(70)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원하는 업체가 있을 지 걱정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경비업무든 뭐든 해볼 참"이라며 "경제도 어려운데 자식들에게 신세지기도 미안하고 나도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이용만(75)할아버지는 "희망근로 일자리도 없어, 소일거리라도 찾아 건강도 챙기고 용돈 벌이도 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노인들에게는 주로 요양보호사, 경비, 청소, 조리사, 주유원, 도배·장판 보조, 간병인 등 비교적 경력이 필요없는 업무가 주어진다. 급여는 업체와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80~150만원 선이다.

(주)대림안전시스템 김선기(60)총무이사는 "군 장교 출신, 대기업 간부 출신 등 과거 경력이 화려한 분을 포함해 이력서를 제출한 어르신만 100명이 넘는다"며 "학력이나 사회 경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비업무의 특성상 '심성과 의지'가 포인트"라고 말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주최하고 광주 YWCA 등이 주관한 '2009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는 이날 하루 2천300여명이 다녀갔으며, 이들 중 912명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다. 지원자들은 2개월 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8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중 7명은 현장에서 채용 됐다.

광주 YWCA 박정순씨는 "예상보다 뜨거운 어르신들의 취업 열기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이런 취업박람회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아직 팔팔해" 1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 광주 노인일자리 박람회' 에 참가한 노인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이력서를 쓰는 이들의 모습에서 취업에 대한 열의가 느껴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 제한속도

시속 110㎞→120㎞ 상향 추진

경찰이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해안선과 중부선 등 설계속도가 120㎞로 건설된 6개 고속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현행 110㎞에서 120㎞로 올릴 계획이다.

설계속도가 120㎞인 고속도로는 서해안선과 제2중부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천안~논산선, 중앙선 대구~부산, 청원~상주선 등 6개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행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110㎞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뒤 속도 상향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올릴 수 있는 2개 도로를 선정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올린 뒤 나머지 도로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서해안선의 경우 서해대교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속도 상향 작업이 추진된다. 서해대교 구간은 잦은 안개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구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경부선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현행 100㎞에서 11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고속도를 올릴 수 있는 구간으로는 편도 5차로인 서울~천안 구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시범적으로 최고 속도를 올릴 도로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서해안선 등 일부 고속도로는 도로 및 주변 여건의 상황에 따라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900〉 김종두

목사가 초등생 성폭행

서부경찰, 5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모 교회 목사 A(5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B(9)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인터넷이 안 되니 좀 봐 달라"며 접근, 집으로 유인해 야한 동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와 전남·북지역 교도소를 돌며 목회 및 교화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신안 임자도 해상 선원 실종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선원이 조업중 실종돼 목포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신안선적 9t급 연안자망어선 D호 선원 박모(44)씨가 어망줄에 감겨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문신 해줄게" 10대 여성 성폭행

쌍나팔

○…"문신을 해주겠다"며 10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감옥 동기' 2명이 경찰서행.

○…목포경찰은 10일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김모(26)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목포시 상동 한 소주방에서 만난 이모(17)양에게 "문신을 해주겠다"고 여관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현금 1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이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오피스텔에 문신용 기구를 갖춰놓고 문신 크기에 따라 1인당 20만~700만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들통.

/목포=대성수기자 dss@

채용 대가 금품 수수

언론사주·대표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기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A신문사 실제 사주 이모(46)씨와 대표 정모(51)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8일 광주시 동구에 A신문사를 창간한 뒤 같은달 17일 조모(54세)씨를 전남 모 지역 주재기자로 채용하면서 200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만취 뺑소니 20대女 체포

심야에 행인 치어 숨지게

광주북부경찰은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주모(여·25)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이날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7% 상태에서 자신의 세라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채모(여·46)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또 어촌계 비리

여수해경, 억대 손해 입힌 임원 등 10명 검거

뇌물을 주고 마을 공동어장의 수산물을 싼값에 넘겨받아 어촌계에 손해를 끼친 조개류 수집상과 이에 동조한 어촌계 임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은 10일 어촌계 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어촌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개류 수집상 A(44)씨와 전남지역 한 어촌계 임원 B(75)씨 등 10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씨 등에게 2천여만원의 '뒷돈'을 건넨 뒤 1상자 당 평균 21만원에 거래되는 자연산 새조개 110여t을 상자 당 15만원에 매입, 해당 어촌계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어촌계 회의를 소집해 A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어촌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실종 50대 車 속 숨진채 발견

10일 오전 10시18분께 해남군 화원면 신덕저수지 인근에서 최모(52)씨가 자신의 1t 화물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최씨가 지난 8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으며, 가족들과 119구조대가 저수지 인근에서 수색을 벌이던 중 도로 옆 5m 아래 지점으로 추락한 화물차 안에서 숨져 있는 최씨를 발견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